

중동 4개국 의료관광 실태 조사 -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황성은, 윤지영, 심정용(UAE지사)

I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글로벌 의료관광시장은 2017년 538억 달러에서 2025년 1435억달러로 약 3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¹⁾ 되는 고성장 시장이며, 한국의 경우에도 2009년 약 6만명에서 2018년 약 38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아 연평균 2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료기관의 주요 관심지역 중에 하나인 중동지역 의료관광 시장에 대해 국비지원 환자를 제외한 자부담(Self payment)을 포함한 일반적인 중동 의료관광 시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구체적인 의료관광 경험 및 선호도와 만족도 등을 실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중동의 주요 4개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의 의료관광시장 이해를 위해 의료관광 목적지 및 선택 이유, 향후 선택의향 등 주요한 지표 조사분석을 통해 한국의료기관의 향후 중동환자유치 확대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조사방법

- 설문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영문)
- 대 상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건강검진, 재활을 포함한 의료목적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각 국가별 300명 표본으로 설정
- 조사기간 : 2019년 1월 9일 ~ 2월 26일
- 조사기관 : Multiply LLC(UAE현지 마케팅조사컨설팅사)
- * 본내용은 UAE현지 마케팅조사업체인 Multiply사의 응답자 DB를 활용한 영문설문조사결과 중 의미있는 설문을 선별하여 응답결과 및 시사점을 재정리한 것임

* 중동주요 4개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의 의료관광시장 관련 현지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였음

* 의료관광시 가장 많이 찾는 진료분과는 치과, 건강검진, 정형외과, 일반수술, 2차소견, 이비인후과, 미용/피부, 비만, 산부인과 등임

* 의료관광방문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태국 등 선진의료국, 인도, 이집트, 터키 등 자국방문과 관광을 겸한 목적지가 혼재되어 있었음

* 의료관광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으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사의 전문성, 의료진의 훈련 수준 등임

* 특정 국가와 의료기관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주변 사람의 입소문과 의사의 의견, 현지병원의 소개 등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남

* 향후 방문시 고려요소로는 의료 시설과 의료경험, 안전(치안), 평판, 해외환자전문 의료진 등을 꼽았음

* 의료관광 정보를 얻는 채널로는 소셜미디어(페이스북)를 최고 선호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중동국가 환자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소셜 미디어 홍보를 강화하면서 한국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임

1) AlliedMarketResearch.co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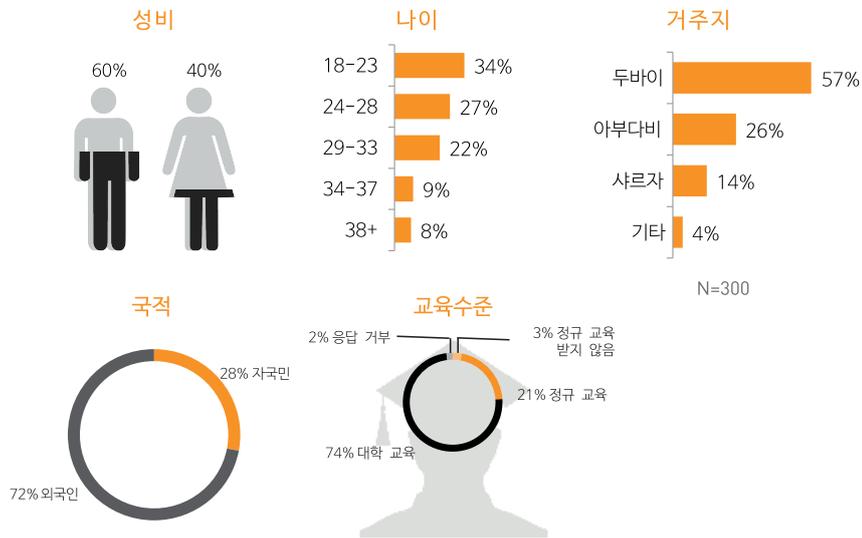
II 조사 결과

I 응답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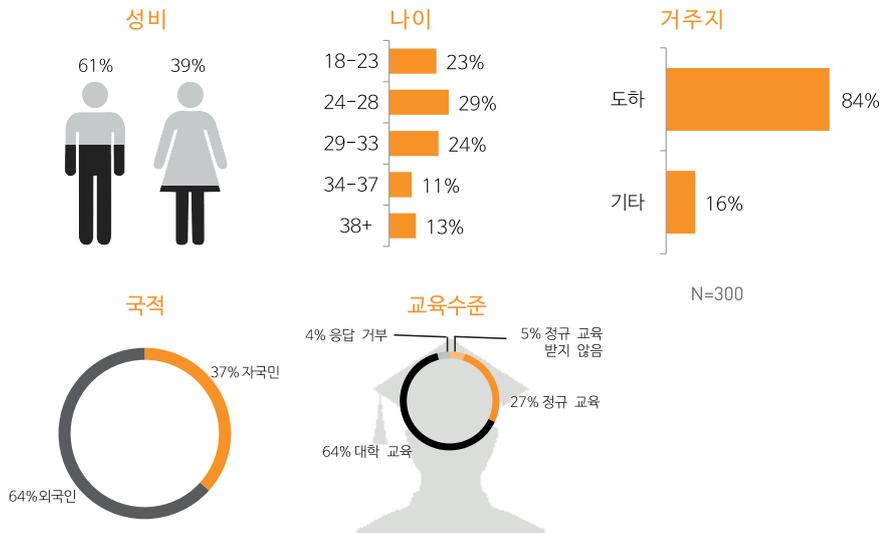
1-1. 응답자 개요

UAE, 카타르, 사우디, 쿠웨이트 모두 남성 응답자가 60%이상으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자국민 응답자는 사우디가 높고(64%), UAE(28%)와 카타르(37%)는 낮으나²⁾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자국민 비율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음³⁾

■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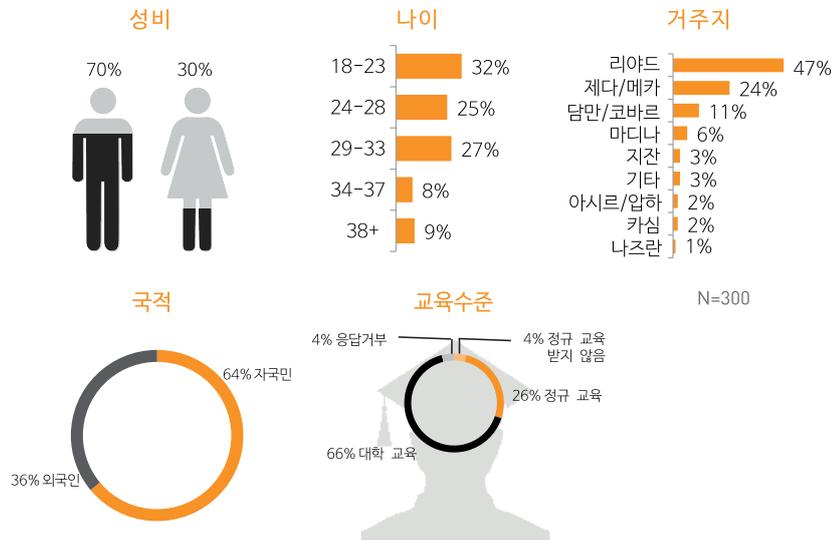
■ 카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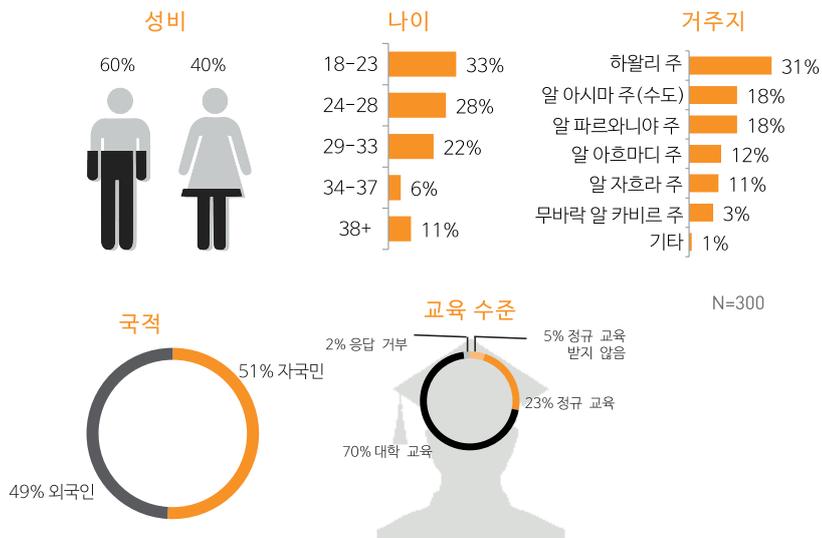
2)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의 전체인구 중 자국민 비율은 각각 63%, 30.4%, 11.6%, 11.6%임(CIA Factbook, 2018)

3) 온라인 응답조사 특성상 젊은층인 20~30대 연령이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대학교육 이상의 고학력자가 65% 이상을 차지함

■ 사우디아라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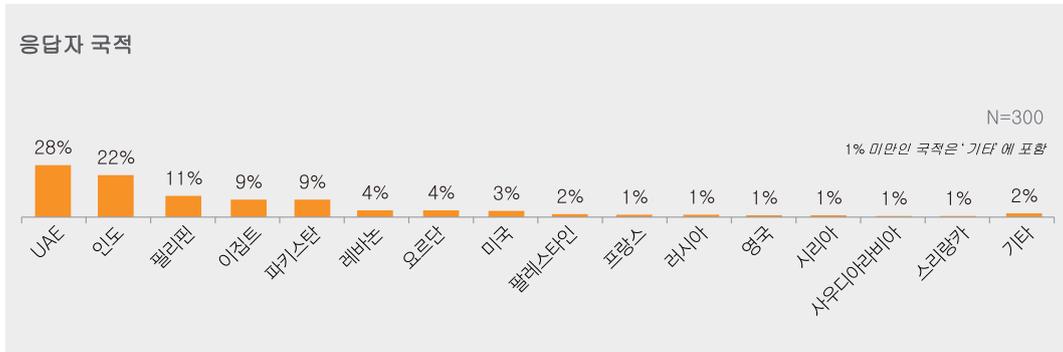


■ 쿠웨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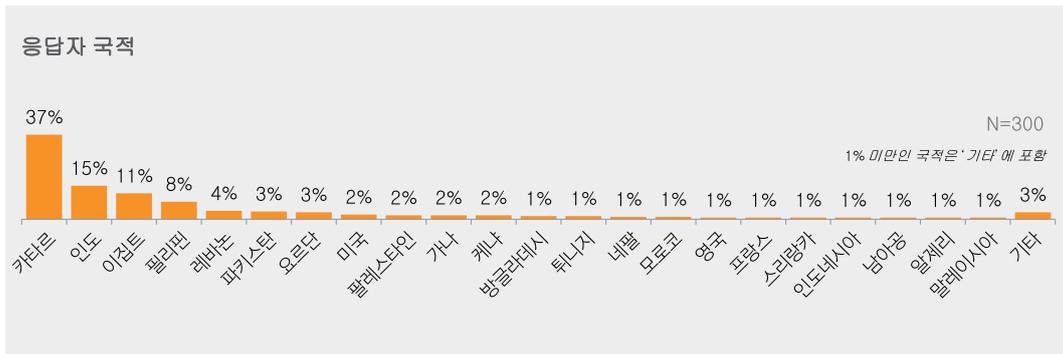
1-2. 응답자 출신 국가

■ UAE



○ UAE 자국민 응답자가 28%로 가장 많고 인도 출신 응답자가 22%로 그 뒤를 이음.

■ 카타르



○ 카타르 자국민 응답자가 37%로 가장 많고 인도 출신 응답자가 15%로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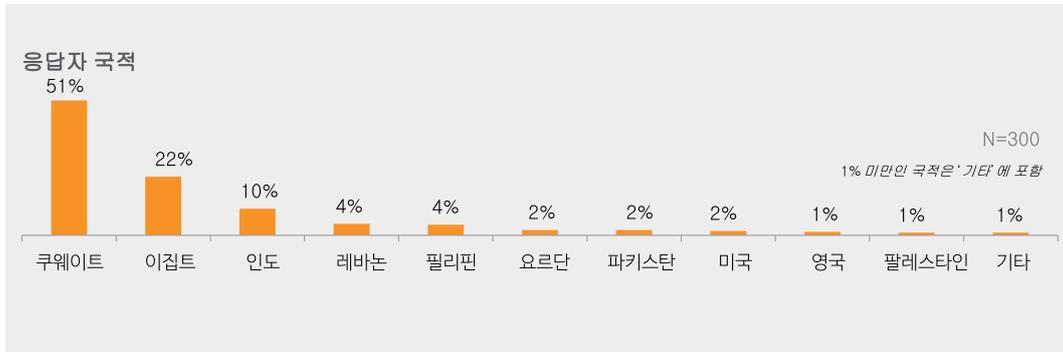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는 자국민 응답자가 64%로 가장 많고 이집트 출신 응답자가 14%로 그 뒤를 이음.



■ 쿠웨이트



- 쿠웨이트는 자국민 응답자가 51%로 가장 많고 이집트 출신 응답자가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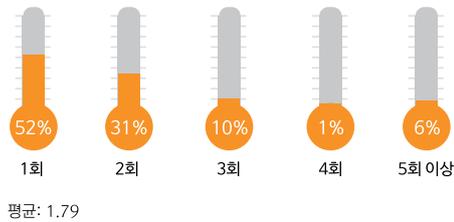
▣ 의료관광 경험 조사 분석

2-1. 의료관광 횟수 및 시기(의료와 관련된 해외여행은 몇 번 했으며 그중 마지막은 언제?)

- 의료관광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 한번 또는 두번 다녀온 경우가 제일 많았으며, 4개국 모두 2018년에 가장 많은 수가 의료관광을 다녀와 의료관광시장이 최근 트렌드라는 것을 나타냄

■ UAE

의료관광 목적 해외여행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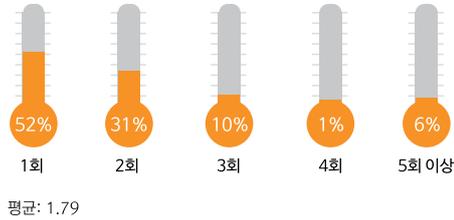
최근 의료관광 시기

N=300



■ 카타르

의료관광 목적 해외여행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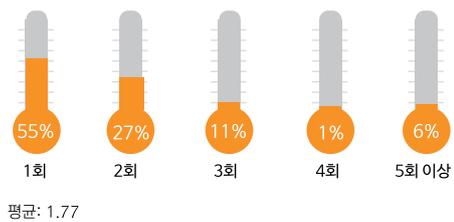
최근 의료관광 시기

N=300



■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관광 목적 해외여행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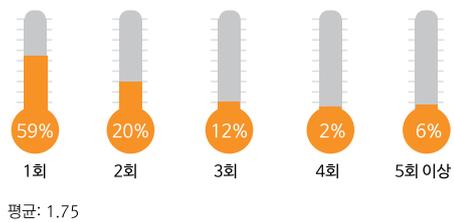
최근 의료관광 시기

N=300



■ 쿠웨이트

의료관광 목적 해외여행 횟수



최근 의료관광 시기

N=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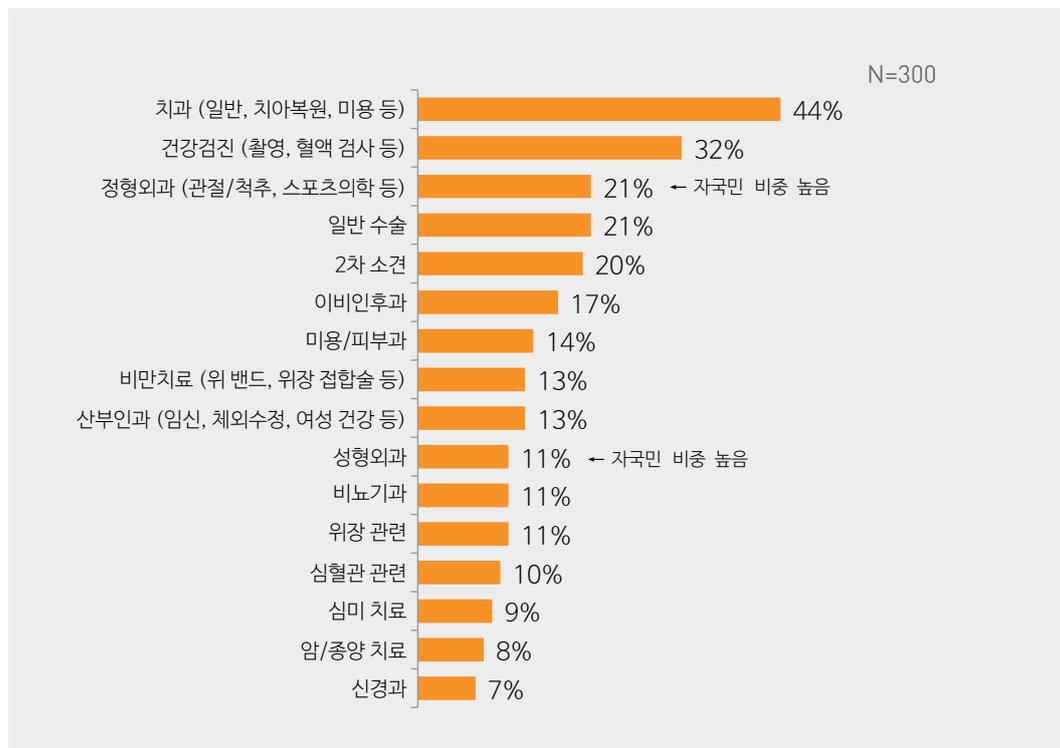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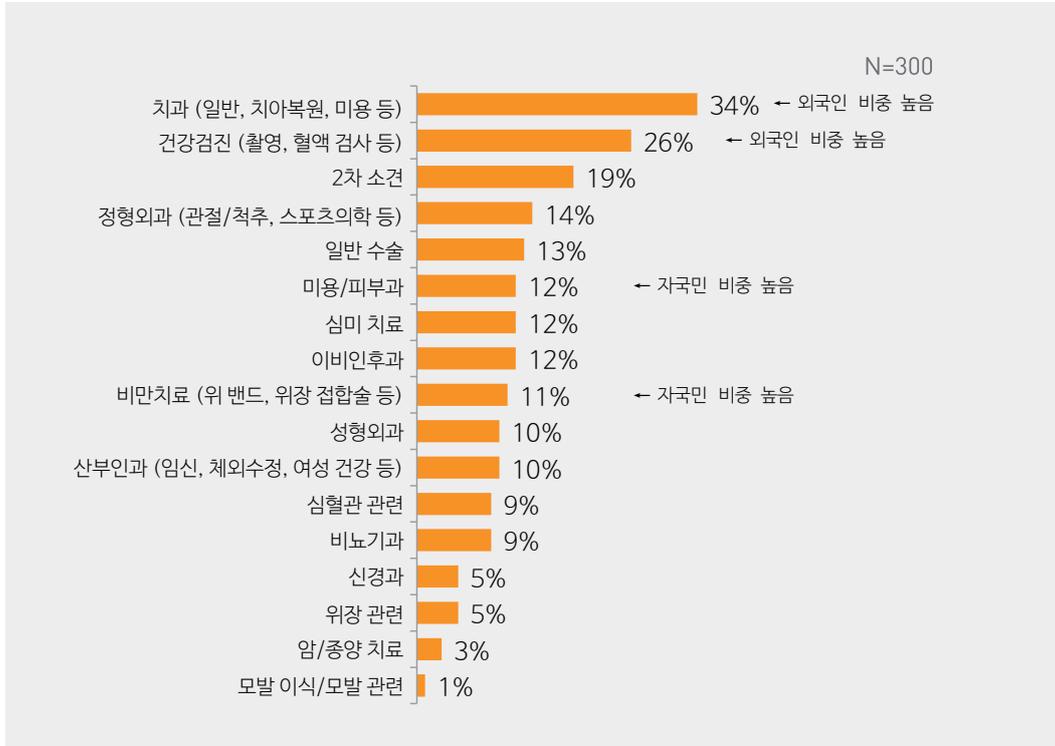
2-2. 의료관광 진료 분과 (해외의료관광시 찾았던 의료분야는?-복수응답)

- 중동 4개국 모두 최대의 의료관광 진료분과는 치과이며, 이어 건강검진, 일반수술, 2차소견, 정형외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외국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비자획득을 위해 의료보험 가입이 대부분 필수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커버율이 낮은 치과 및 건강검진을 위한 해외진료를 선호하며 본국으로 여행시 동과 진료를 보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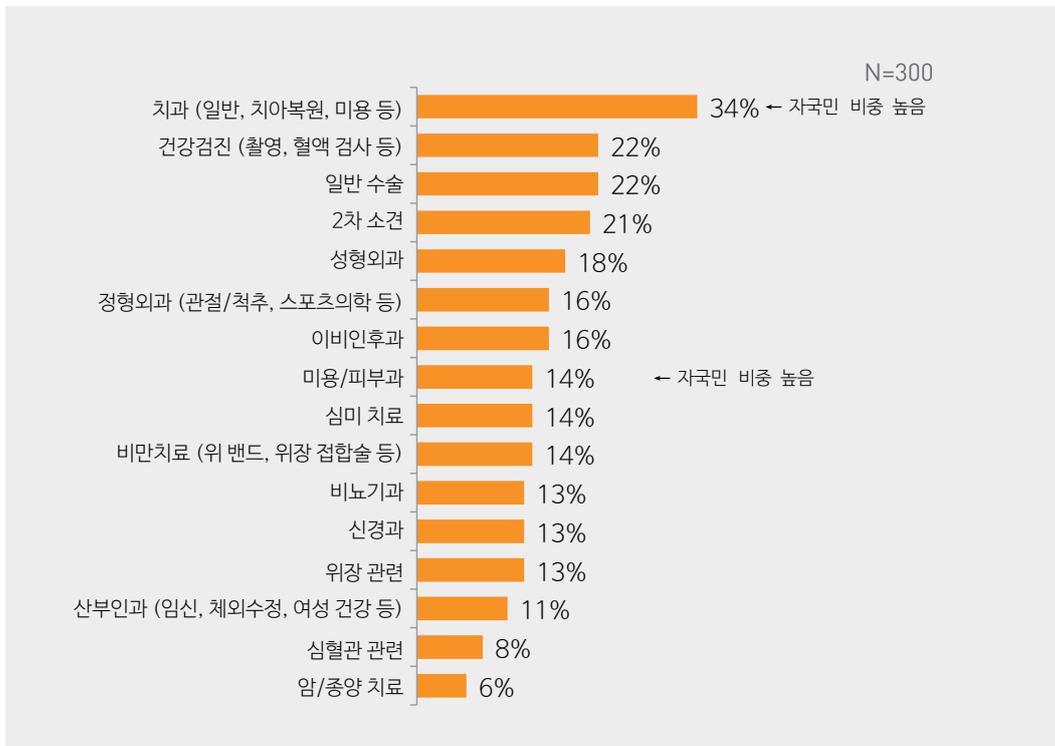
■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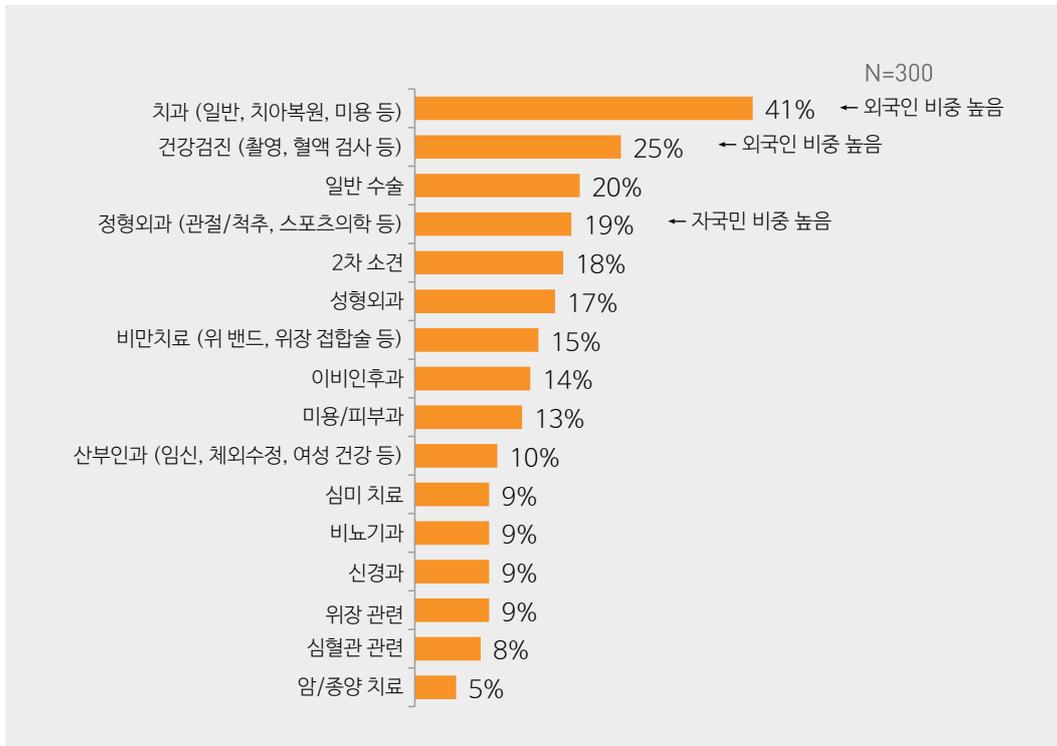
■ 카타르



■ 사우디아라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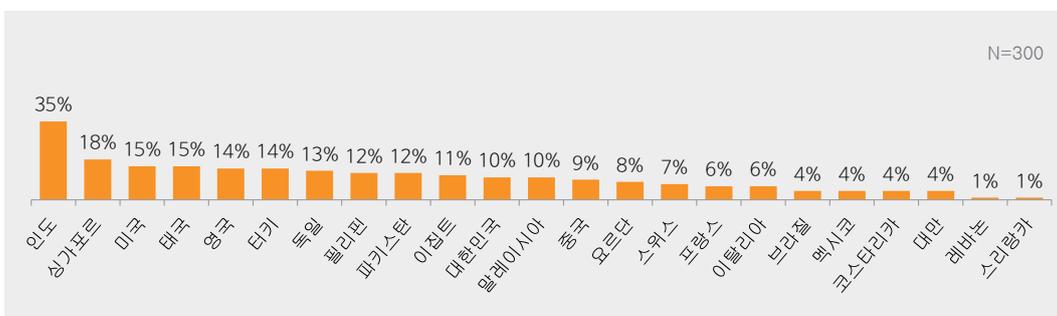
■ 쿠웨이트



2-3. 해외 의료관광 목적지 (복수응답)

- UAE가 다른 3개국보다 한국을 의료관광 목적지로 더 많이 선택하고 있음(목적지 순위: 11번째)14~15번째). 이는 UAE 국비환자의 한국의료기관 진료 증가 및 한국의료 홍보를 통한 한국의료에 대한 높은 인지도로 풀이됨
- 조사대상국에서 공통적으로 인도, 이집트, 터키 등이 의료관광 목적으로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선택되었으며, 이는 대상국내 인도인 비중이 높은 측면(의료관광 목적외에 자국방문 요인이 작용)과 이집트, 터키는 중동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역이라는 것과 관계가 클 것으로 보임⁴⁾
- 4개국의 국비 지원환자 주요 송출 지역인 미국, 독일, 영국, 싱가포르 등도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음

■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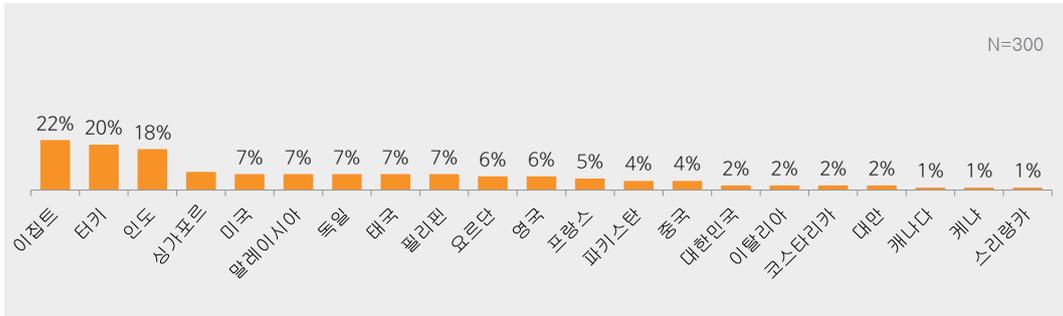


-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인도이며(UAE내 인도인 거주자의 비율이 가장 높음)⁵⁾, 싱가포르, 미국, 태국, 영국, 독일 등은 국비환자의 주요 해외진료 목적지임

4) GCC사람들이 휴가기간중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1위 이집트 카이로, 2위 터키 이스탄불로 나타남(Gulf New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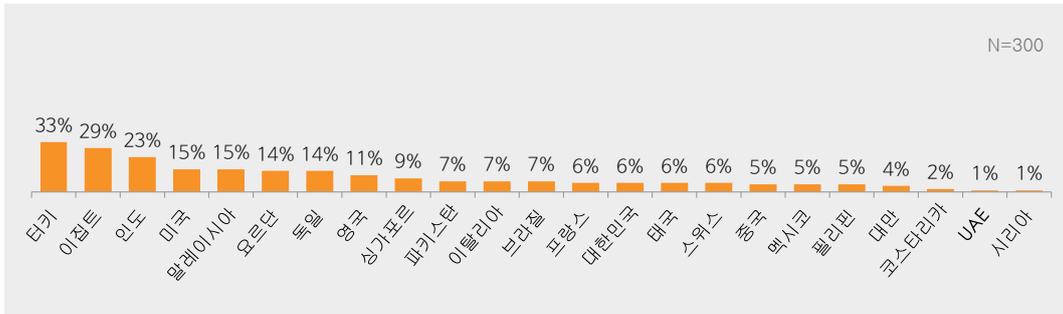
5) UAE내 인도인 인구비중 23%이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을 합하면 전체인구의 50%를 차지 (CIA등)

■ 카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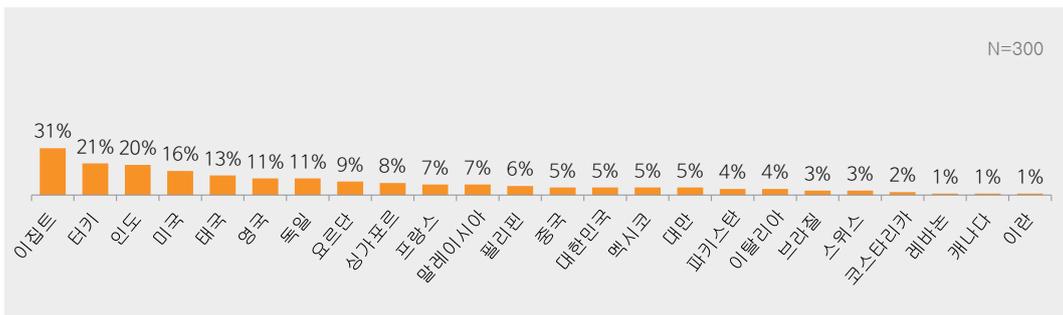
-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집트이며, 무슬림들의 의료관광 목적지로 손꼽히는 터키가 상위권을 차지함

■ 사우디아라비아



- 카타르와 비슷하게 터키, 이집트, 인도로 의료관광을 위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요르단도 상위권에 포함됨

■ 쿠웨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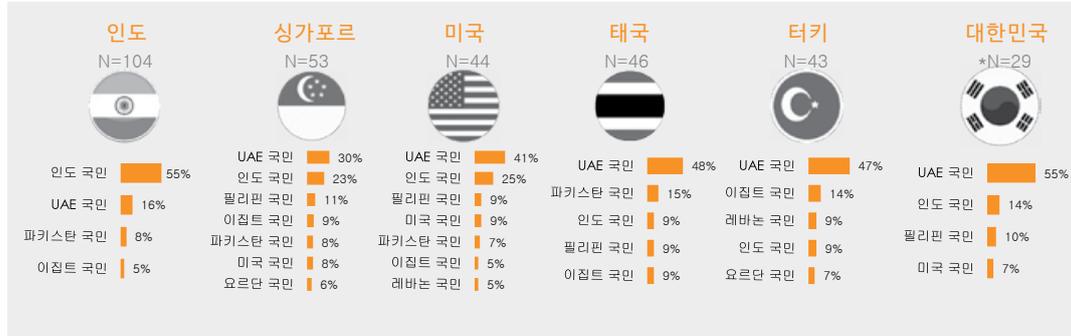
- 사우디, 카타르와 비슷하게 이집트, 터키, 인도 등에 의료관광을 위해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태국도 상위권에 포함됨

2-4. 응답자의 국적별 의료관광 목적지(복수응답)

- 자국민의 비율이 낮고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중동국가에서, 응답자의 국적별 의료관광 방문국을 구분하면 UAE, 카타르, 쿠웨이트 자국민이 인도를 제외한 주요 의료관광대상국을 가장 많이 방문했음

- 사우디의 경우만 사우디 자국민이 모든 의료관광 국가에 가장 많이 방문하였으며, UAE, 카타르, 쿠웨이트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국적자는 인도를 의료관광 목적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됨

■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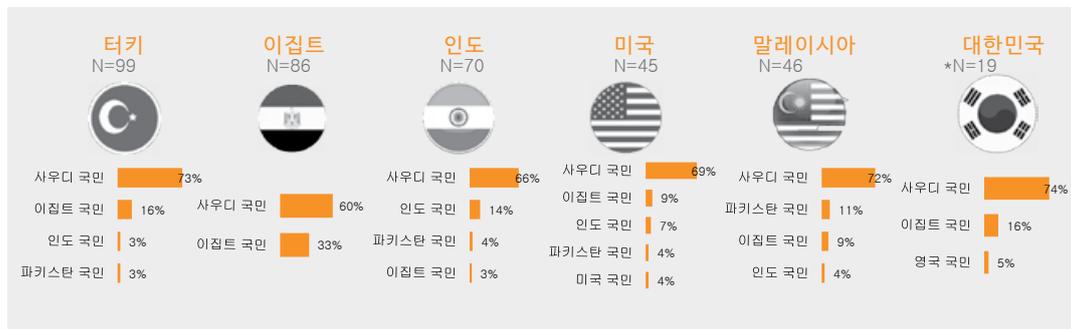
-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경우, UAE 자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

■ 카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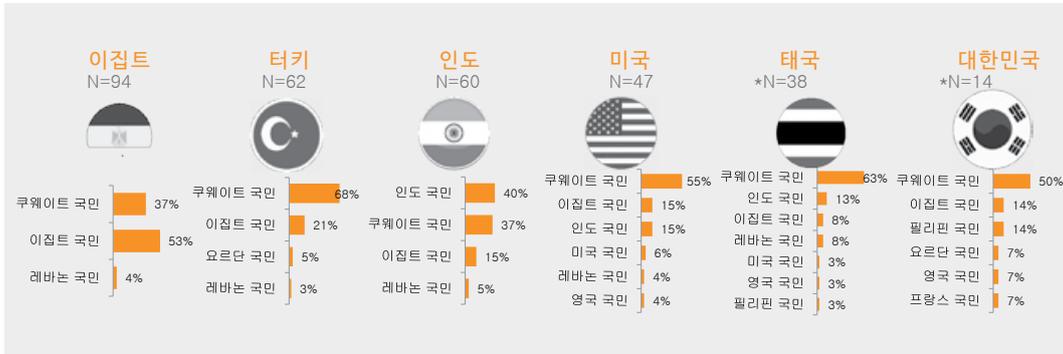
- UAE 응답자와 같은 추이. 카타르 자국민이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에 가장 많이 방문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 자국민이 모든 국가에 가장 많이 방문

■ 쿠웨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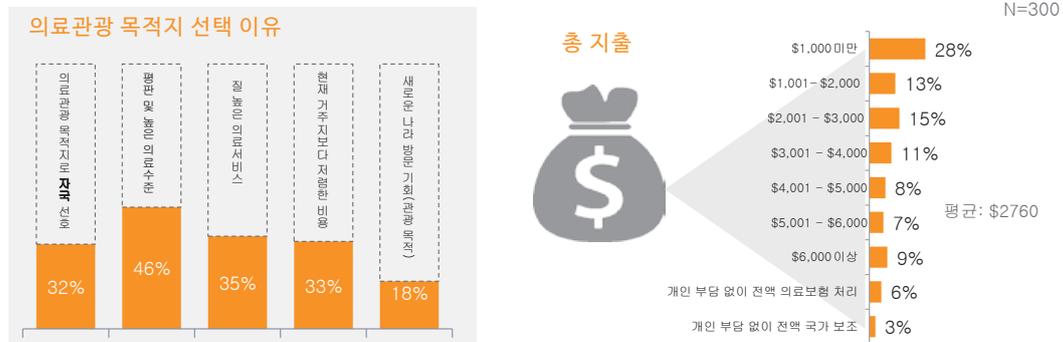


- UAE, 카타르 응답자와 같이 쿠웨이트 자국민이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을 가장 많이 방문

2-5. 의료관광 국가 선택 이유(의료관광을 위해 그 나라를 선택한 이유 및 비의료영역 비용을 포함하여 회당 총지출한 평균비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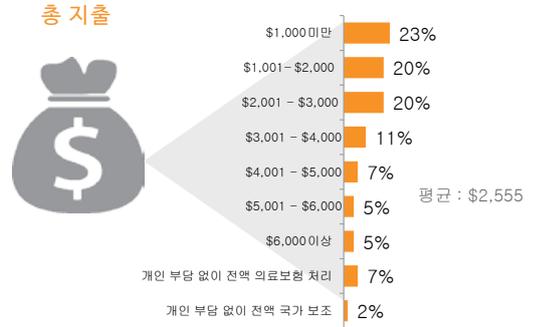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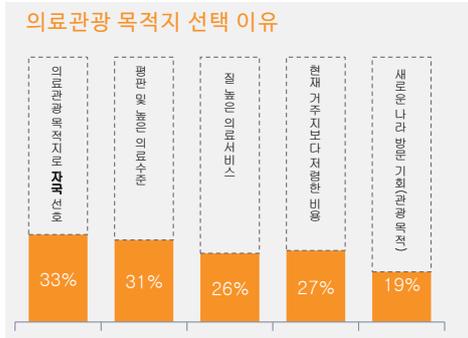
- 4개국 모두 평판 및 높은 의료수준이 의료관광 국가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응답하여 해외환자 유치 마케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평판 및 높은 의료수준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거주국가보다 저렴한 비용 등을 선택 요소로 꼽음
- 4개국의 1회 평균 진료비는 2,500달러~2,800달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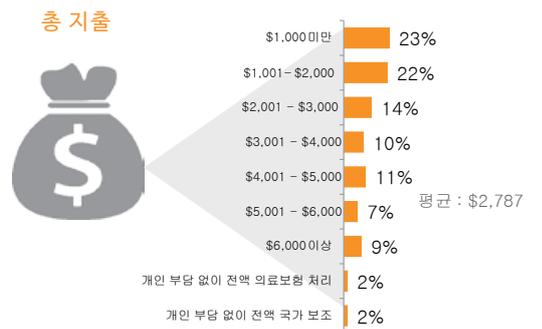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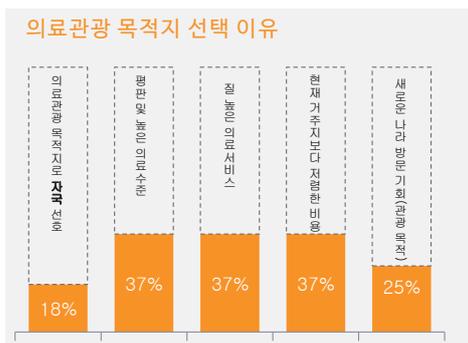
-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의료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 이유로 평판 및 높은 의료수준 선택
- UAE 자국민이 외국인에 비해 해당 이유를 선택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카타르



○ 카타르 자국민이 '평판 및 높은 의료수준' 을 선택하는 비중이 외국인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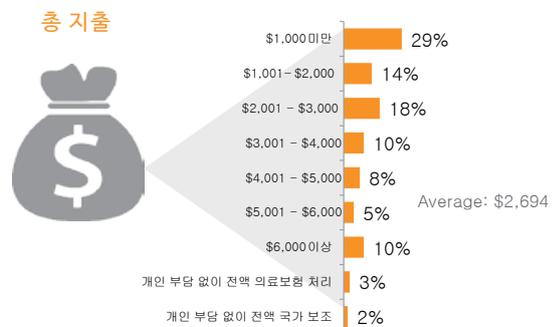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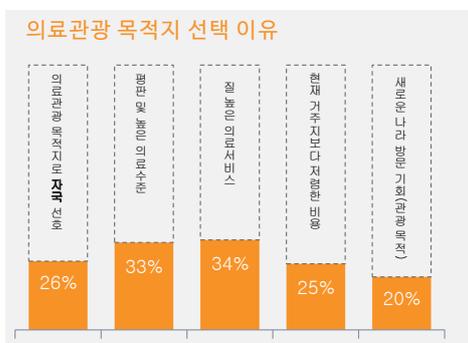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



○ 의료수준, 의료서비스, 비용이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질 높은 의료서비스' 선택 비중이 높음.

○ 사우디의 경우 '저렴한 비용' 도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임.

■ 쿠웨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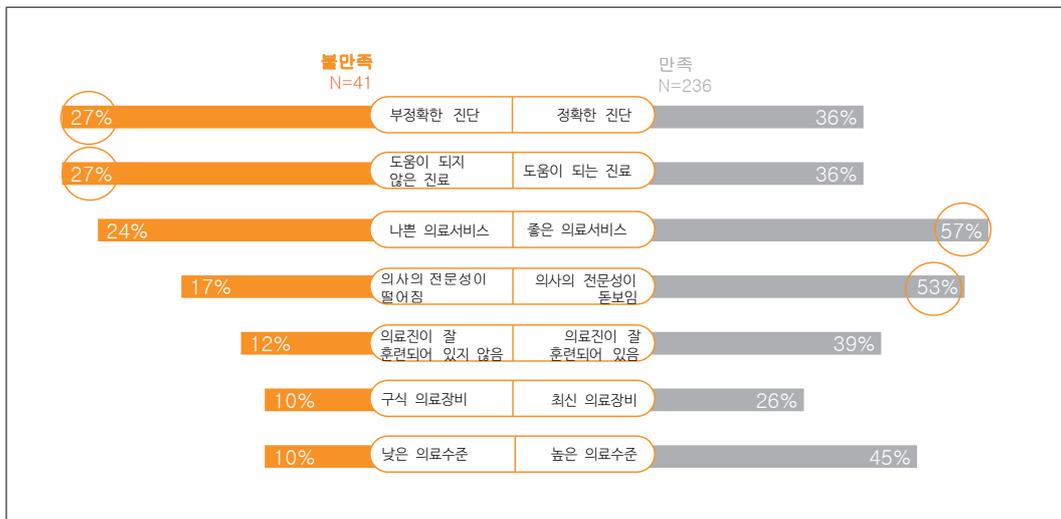


○ 나머지 3개국과 비슷하며 자국민의 '평판 및 높은 의료수준' 선택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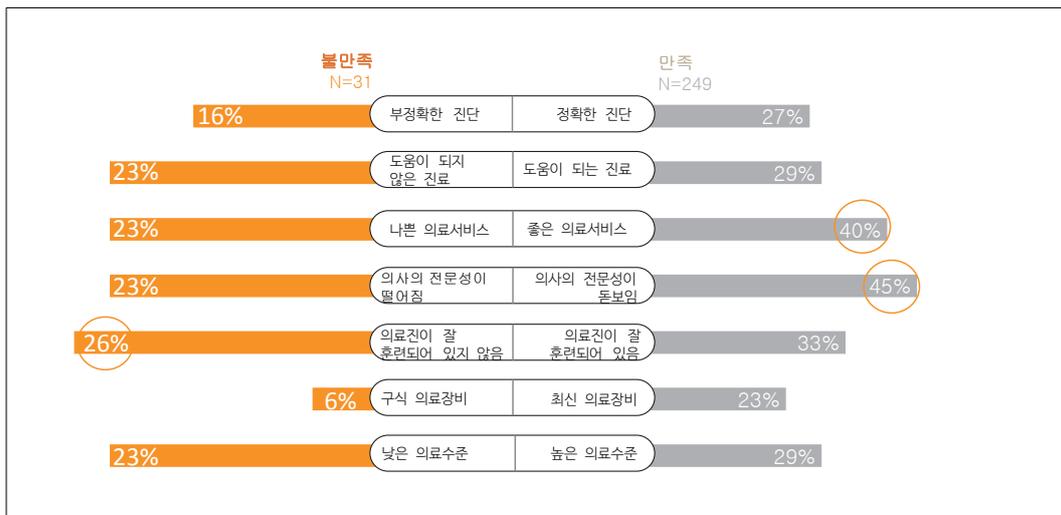
2-6. 의료와 관련된 요소와 만족/불만족 상관 관계(만족한 이유는?/불만족한 이유는?)

- 해외 의료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UAE 79%, 카타르 83%, 사우디 68%, 쿠웨이트 70%로 나타났다
- 만족,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수 선택을 가능하도록 설문을 하여 의료관광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4개국 모두 '의사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를 선택하였음
- 불만족한 사유로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부정확한 진단', '의료진의 미숙함'등을 선택하여 환자와 대면하는 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와 의료기관의 서비스가 핵심 요소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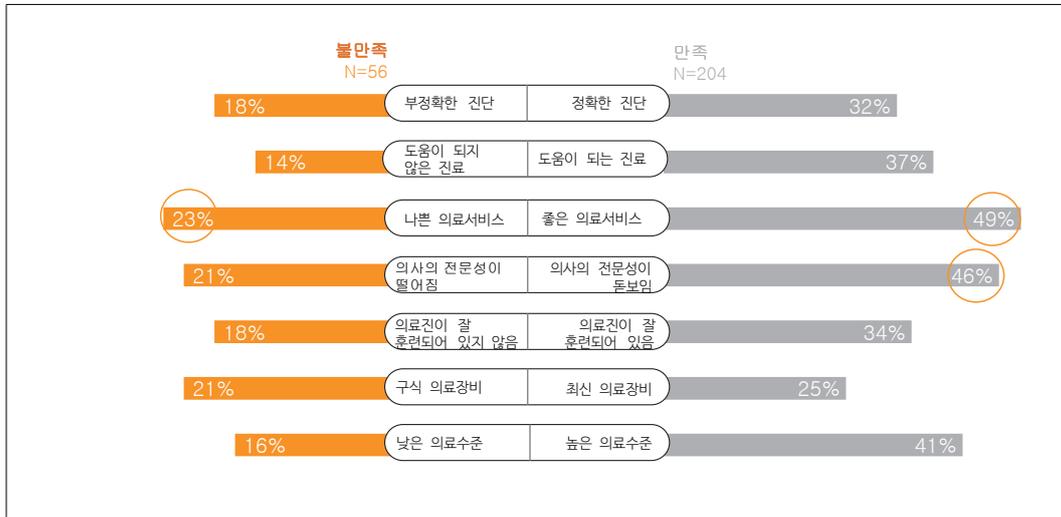
■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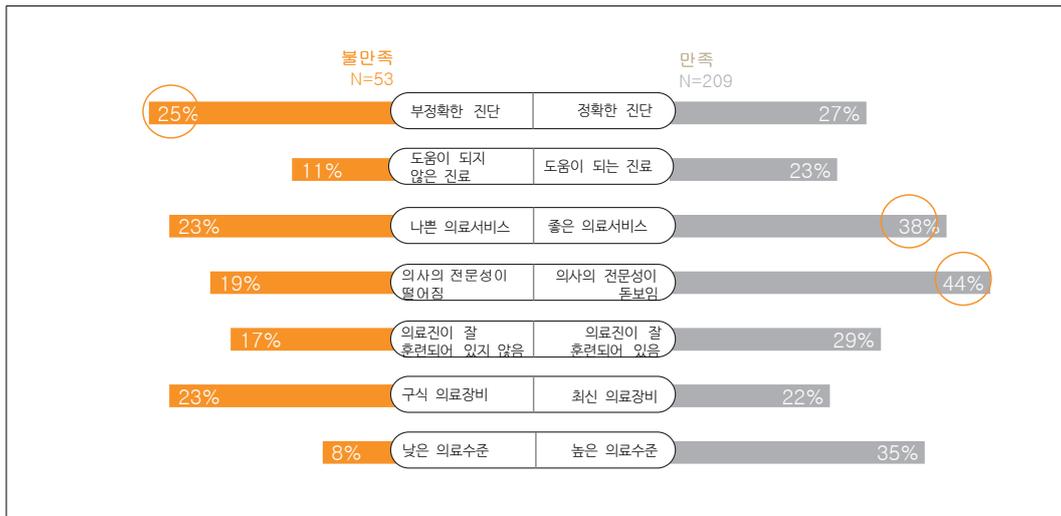
■ 카타르



■ 사우디아라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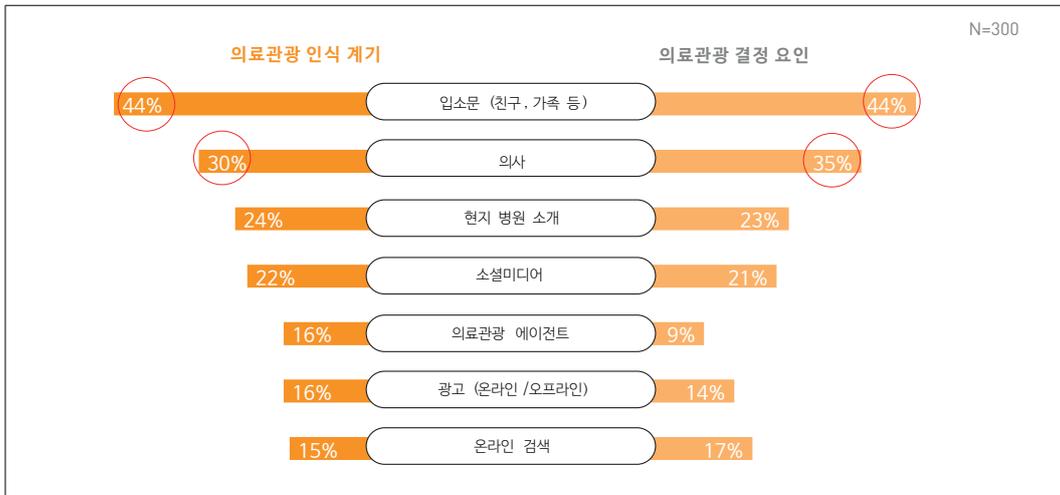
■ 쿠웨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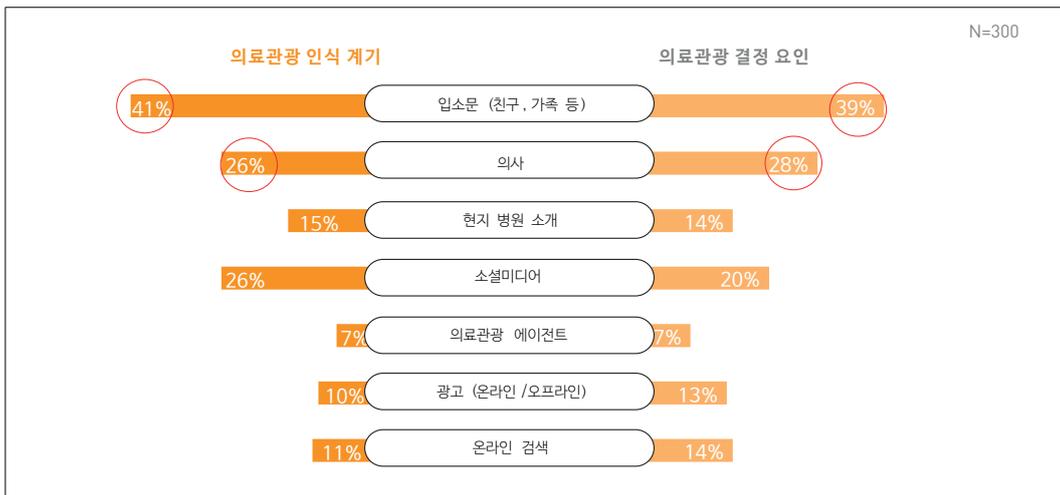
2-7. 의료관광 인식 및 결정의 요인(어떻게 특정 국가의 특정 의료기관을 알게 되었으며 그곳 방문을 결정하게 되었는가?)

- 4개국 공통적으로 의료관광을 인지하고, 의료관광을 결정하게 된 요인으로서 '친구와 가족 등 주변의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변 '의사'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나타남
-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인지 및 결정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UAE를 제외한 3개국에서 '현지병원의 소개'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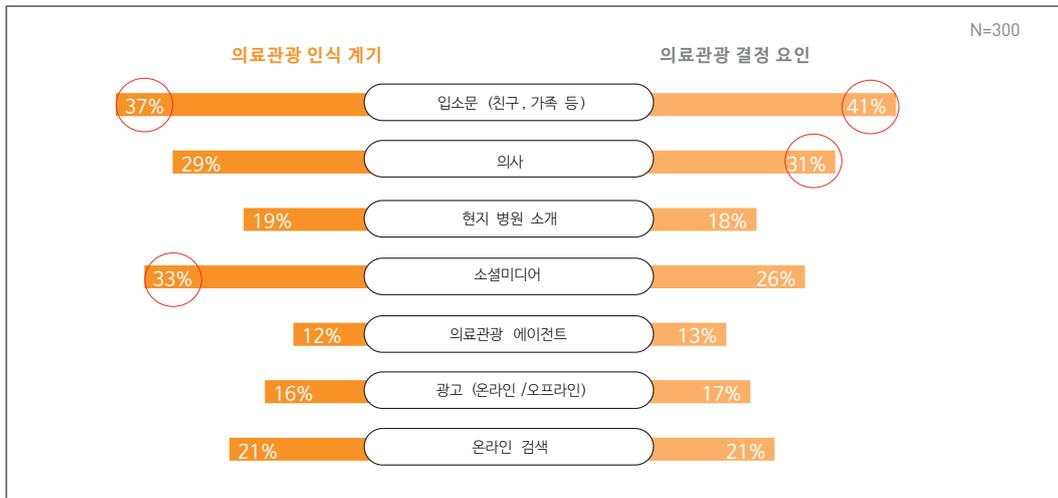


■ 카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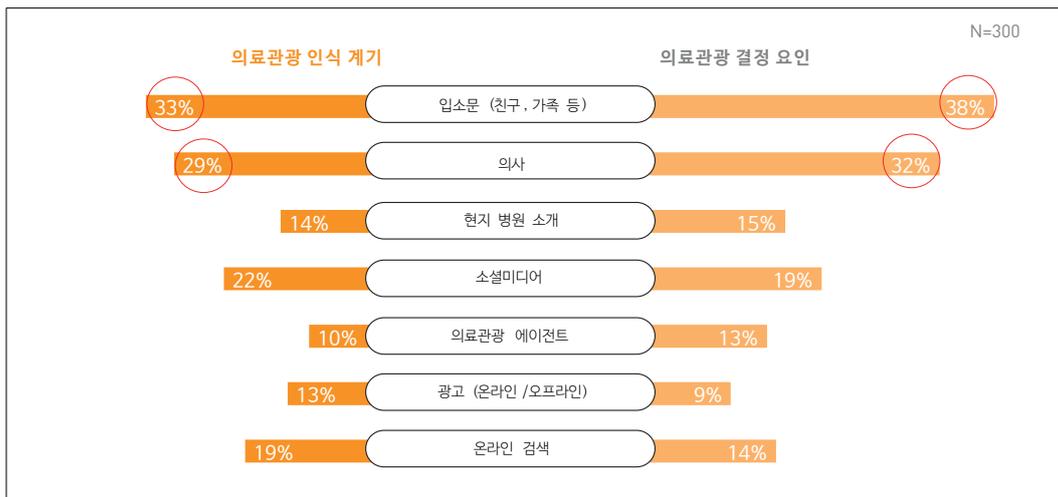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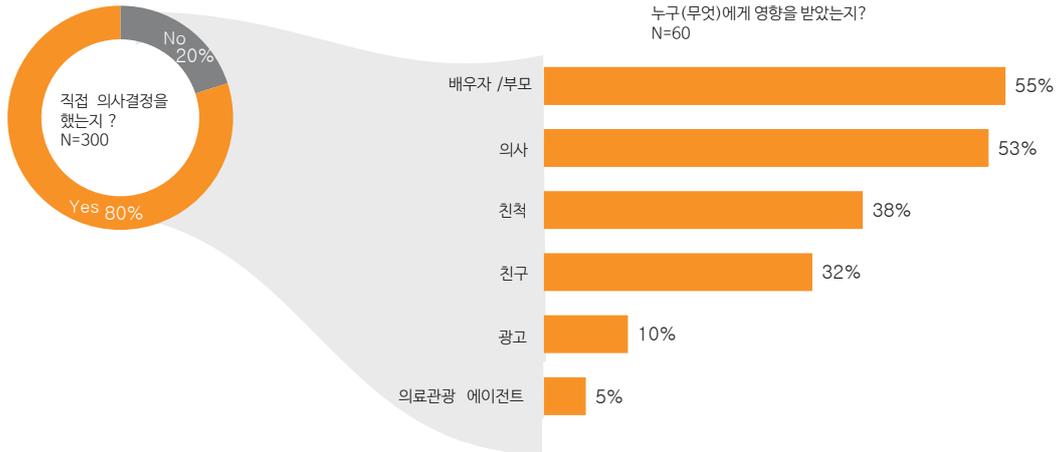
■ 쿠웨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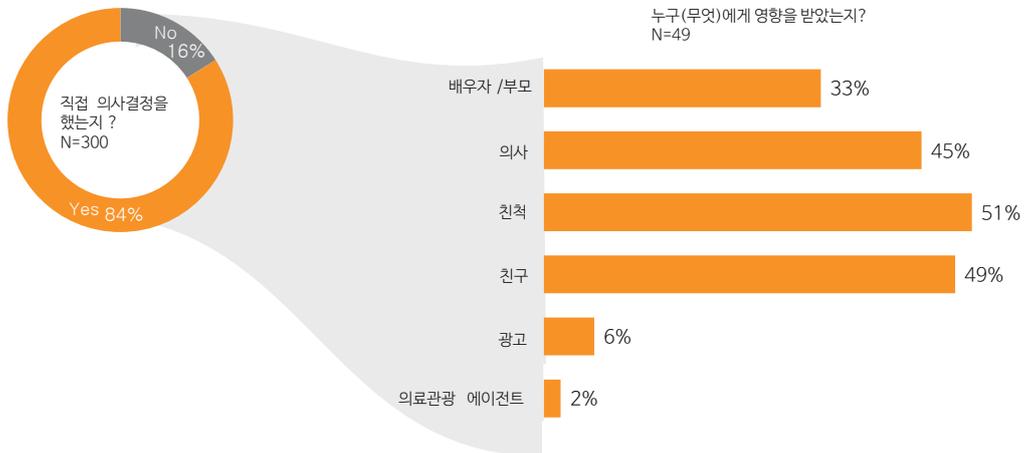
2-8. 의료관광의 결정자(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누구에게 영향받았는지?)

- 의료관광을 직접 결정한 경우가 많으나 타인이 결정해 준 경우에는 '배우자/부모'가 중요한 결정자이며 그 다음으로 의사, 친구, 친척 등이 결정하였음. 이는 의료관광의 인식 및 결정요인이 주변의 입소문과 의사였던 결과와 일관된 응답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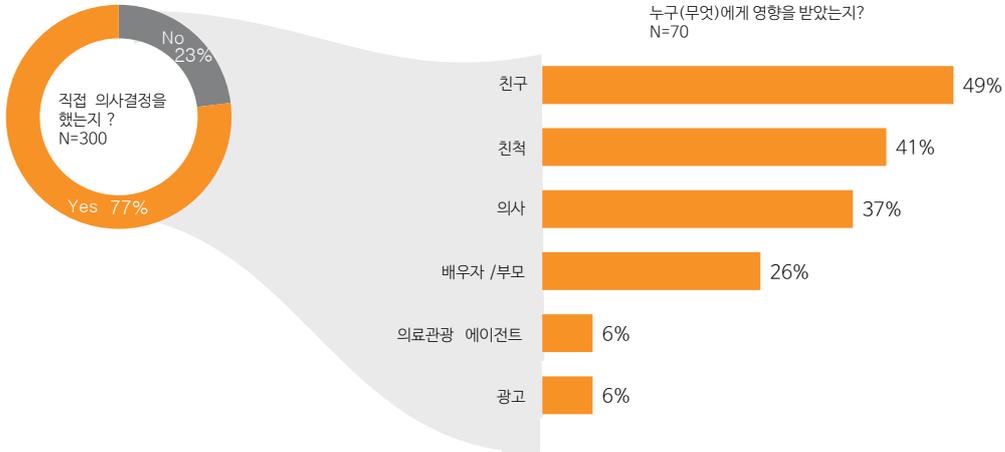
■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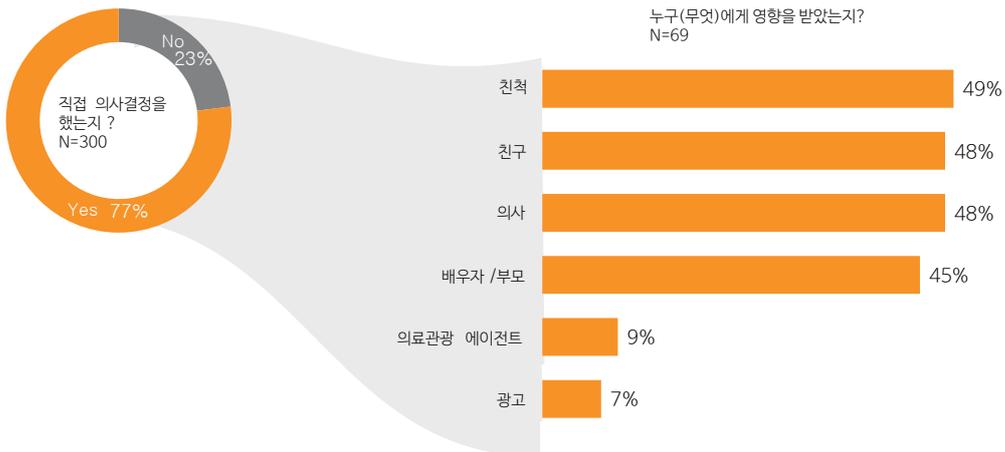
■ 카타르



■ 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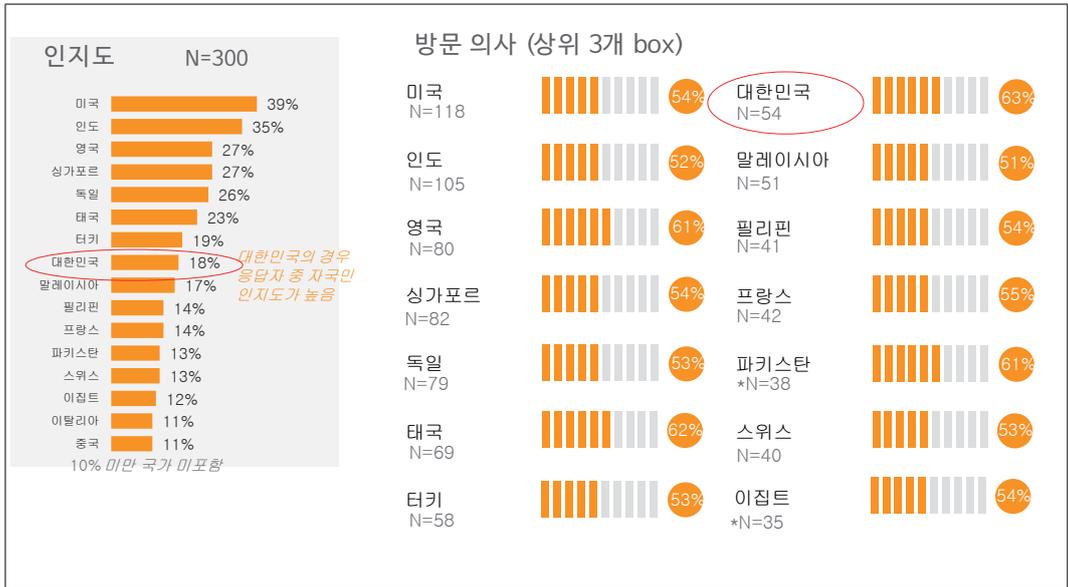


㉓ 의료관광 대상지(국가) 인지도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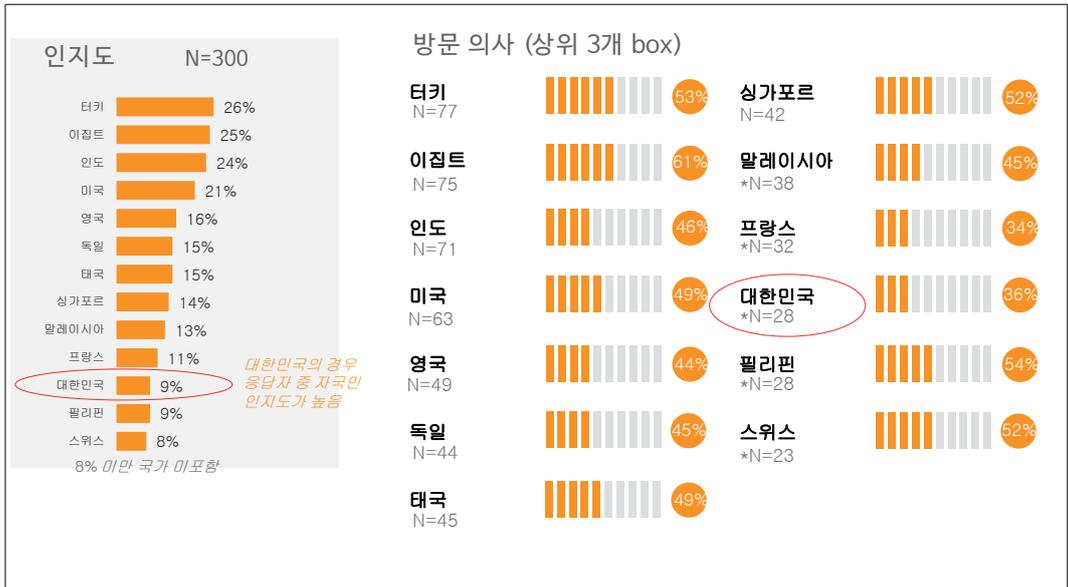
3-1. 인지도 및 향후 방문 의사(의료관광지중 아는 국가-중복선택 및 향후 방문 의사있는지?)

- 중동 4개국에서 의료관광 목적지로서의 인지도는 선진국인 미국, 독일, 싱가포르, 영국등과 함께 이집트, 터키, 인도 등이 높게 나왔음
- 한국은 UAE에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18%)를 나타냈으며, 인지도 관련 한국을 선택한 응답자의 향후 한국 방문의사에서 63%(복수응답 3개)로 의료관광 목적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의료관광 인지도 및 향후 방문 목적지로서 인도는 중동 국가내 높은 인구비율을 바탕으로 인도국민의 자국방문 동기가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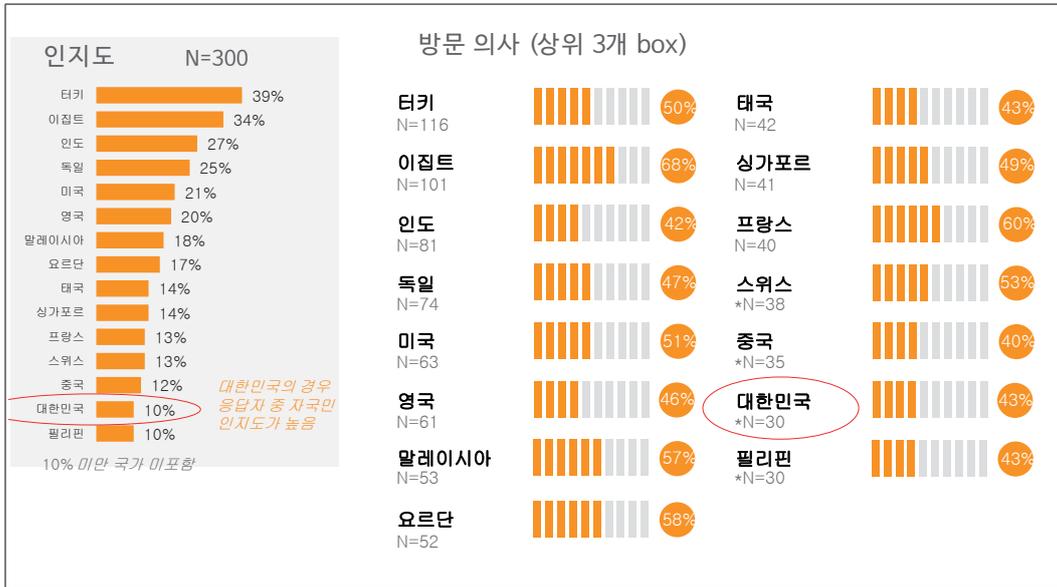
■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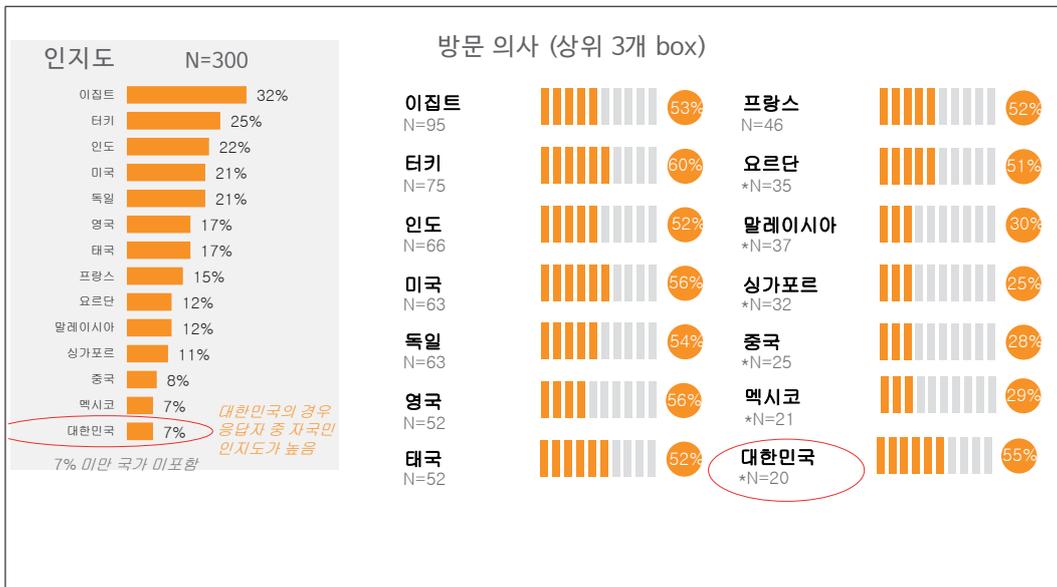
■ 카타르



■ 사우디아라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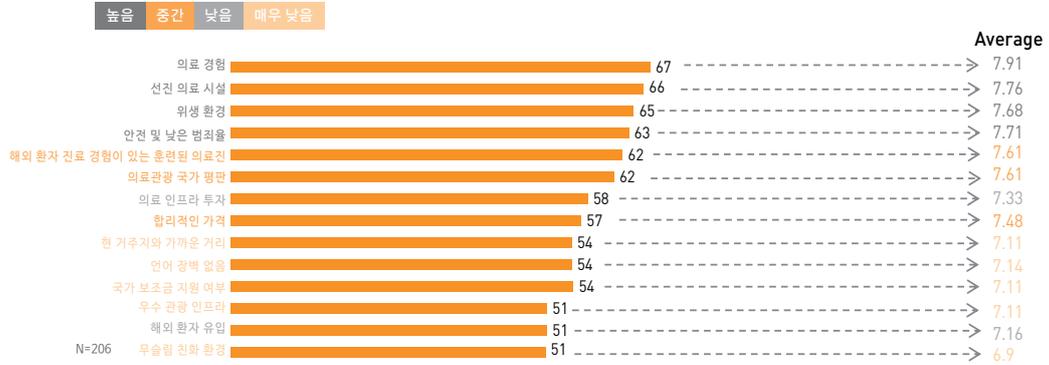
■ 쿠웨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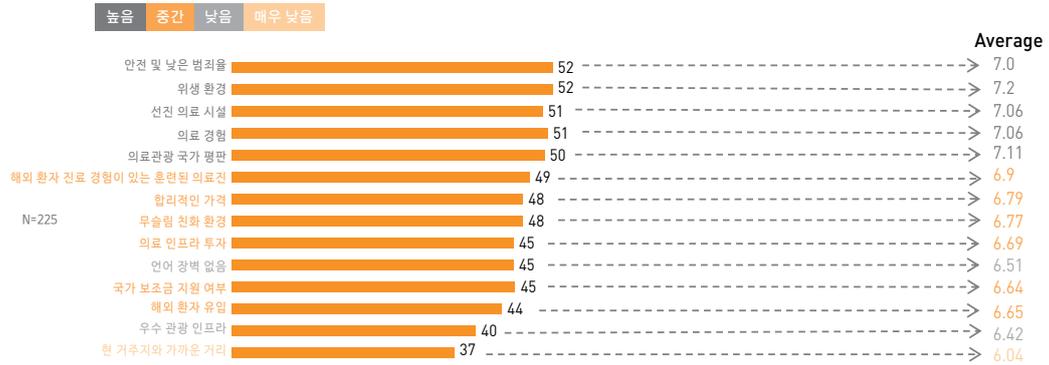
3-2. 향후 의료관광 국가 선택 시 고려 요소(주어진 선택요소별 중요도를 평가: 1~10)

- 향후 의료관광 국가 선택시 고려요소를 질문한 결과 3개국(UAE, 사우디, 쿠웨이트)에서 '의료경험'이 향후 선택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나타났으며, 카타르 응답자의 경우 '안전 및 낮은 범죄율'을 최우선으로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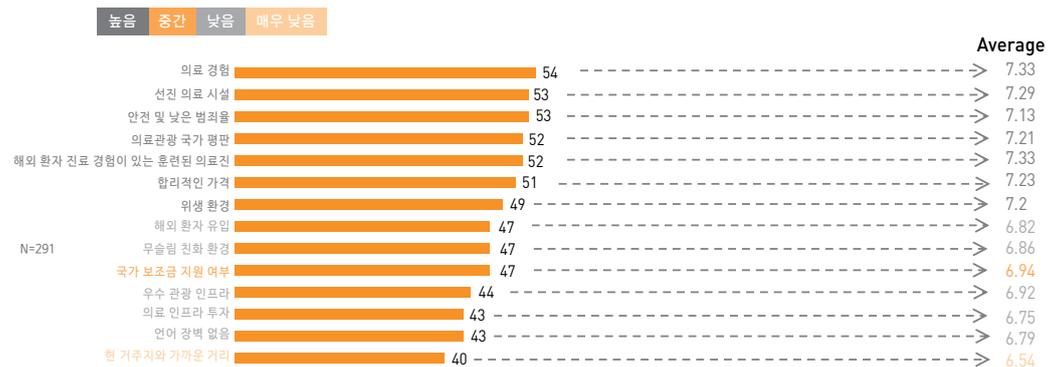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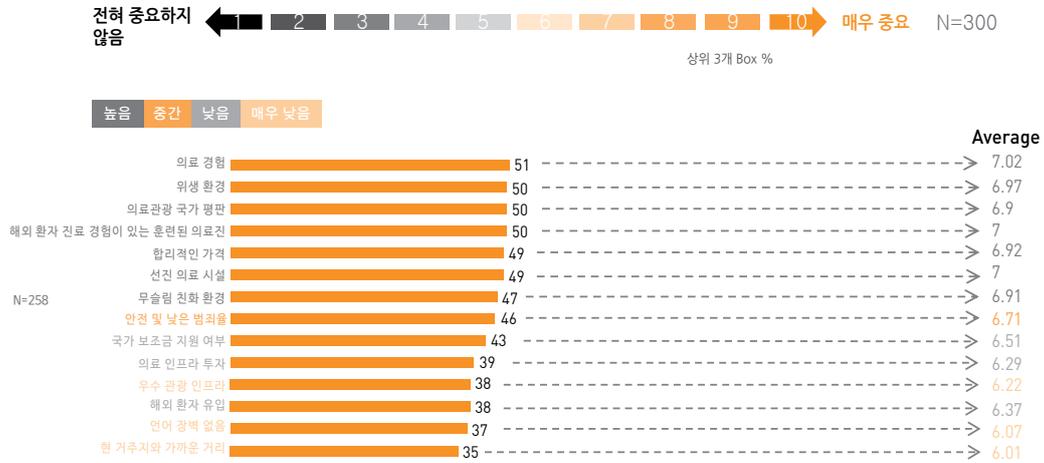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3-3. 국가별 고려 요소 연관도(제시된 의료요소별로 떠오르는 국가를 모두 선택해주실 것)

- 미국, 영국, 독일, 태국 등 의료관광 선두국가 및 한국을 대상으로 고려요소들의 연관도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UAE의 경우 '위생환경', 카타르의 경우 '안전 및 낮은 범죄율'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중요도가 높은군에 속하는 '의료경험', '선진의료시설' 등 나머지 요소들은 미국, 영국, 독일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UAE

	중요도 (N=300)	대한민국 (N=50)	미국 (N=116)	영국 (N=78)	독일 (N=77)	태국 (N=67)
의료 경험	7.91	58%	74%	62%	74%	52%
선진 의료 시설	7.76	60%	78%	73%	71%	49%
안전 및 낮은 범죄율	7.71	68%	52%	60%	70%	48%
위생 환경	7.68	78%	73%	77%	71%	52%
의료관광 국가 평판	7.61	56%	73%	74%	69%	64%
해외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훈련된 의료진	7.61	50%	81%	74%	74%	60%
합리적인 가격	7.48	58%	45%	41%	44%	79%
의료 인프라 투자	7.33	72%	78%	74%	69%	48%
해외 환자 유입	7.16	62%	72%	68%	66%	67%
언어 장벽 없음	7.14	36%	69%	65%	43%	42%
우수 관광 인프라	7.11	74%	78%	63%	64%	69%
현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	7.11	46%	31%	44%	39%	57%
무슬림 친화 환경	6.9	32%	24%	44%	27%	42%

■ 카타르

	중요도 (N=300)	대한민국 (*N=25)	미국 (N=60)	영국 (N=45)	독일 (N=42)	태국 (N=45)
위생 환경	7.2	80%	63%	82%	81%	73%
의료관광 국가 평판	7.11	64%	70%	80%	81%	80%
선진 의료 시설	7.06	56%	82%	80%	81%	64%
의료 경험	7.06	56%	72%	73%	81%	71%
안전 및 낮은 범죄율	7	84%	48%	58%	71%	71%
해외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훈련된 의료진	6.9	56%	80%	62%	76%	76%
합리적인 가격	6.79	48%	48%	47%	45%	96%
무슬림 친화 환경	6.77	48%	18%	38%	26%	51%
의료 인프라 투자	6.69	68%	72%	71%	76%	67%
해외 환자 유입	6.65	48%	75%	64%	69%	82%
언어 장벽 없음	6.51	44%	73%	69%	40%	51%
우수 관광 인프라	6.42	80%	78%	69%	79%	89%
현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	6.04	48%	37%	44%	38%	58%

■ 사우디아라비아

	중요도 (N=300)	대한민국 (*N=29)	미국 (N=61)	영국 (N=59)	독일 (N=73)	태국 (N=39)
의료 경험	7.33	45%	82%	68%	75%	51%
해외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훈련된 의료진	7.33	62%	87%	69%	77%	64%
선진 의료 시설	7.29	52%	89%	75%	77%	49%
합리적인 가격	7.23	69%	54%	51%	58%	77%
의료관광 국가 평판	7.21	72%	79%	75%	79%	51%
위생 환경	7.2	72%	74%	68%	81%	49%
안전 및 낮은 범죄율	7.13	62%	51%	61%	84%	59%
우수 관광 인프라	6.92	72%	74%	66%	70%	64%
무슬림 친화 환경	6.86	55%	59%	59%	62%	59%
해외 환자 유입	6.82	48%	82%	61%	74%	59%
언어 장벽 없음	6.79	55%	56%	56%	47%	51%
의료 인프라 투자	6.75	66%	79%	71%	68%	72%
현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	6.54	62%	43%	41%	52%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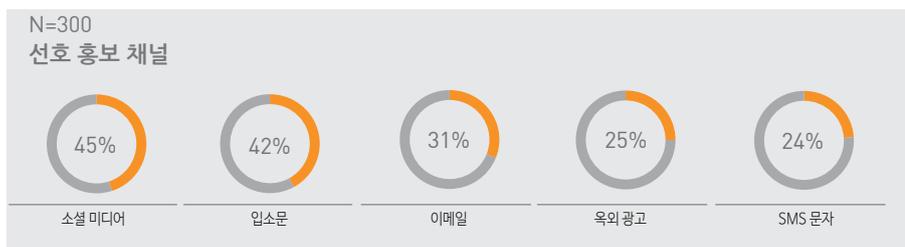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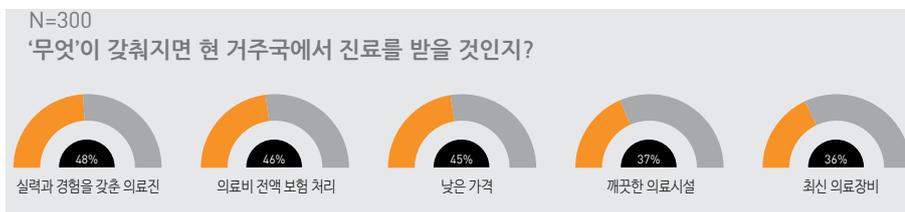
■ 쿠웨이트

	중요도 (N=300)	대한민국 (N=20)	미국 (N=60)	영국 (N=50)	독일 (N=61)	태국 (N=50)
의료 경험	7.02	80%	78%	80%	92%	46%
선진 의료 시설	7	60%	83%	76%	85%	42%
해외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훈련된 의료진	7	70%	80%	90%	90%	50%
위생 환경	6.97	80%	75%	78%	95%	54%
합리적인 가격	6.92	55%	45%	34%	51%	82%
무슬림 친화 환경	6.91	60%	37%	40%	54%	64%
의료관광 국가 평판	6.9	55%	78%	76%	93%	42%
안전 및 낮은 범죄율	6.71	65%	52%	72%	70%	38%
해외 환자 유입	6.37	65%	77%	80%	80%	54%
의료 인프라 투자	6.29	80%	77%	70%	80%	54%
우수 관광 인프라	6.22	75%	73%	82%	69%	62%
언어 장벽 없음	6.07	60%	62%	70%	52%	42%
현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	6.01	65%	33%	50%	66%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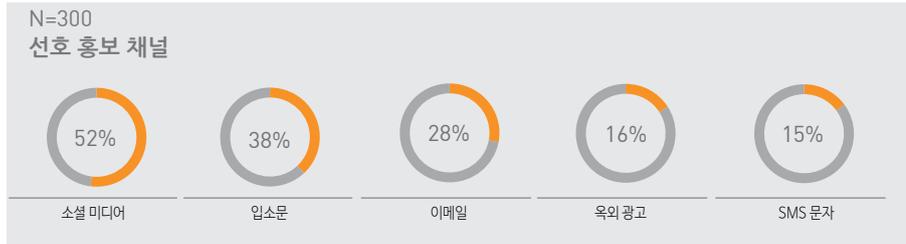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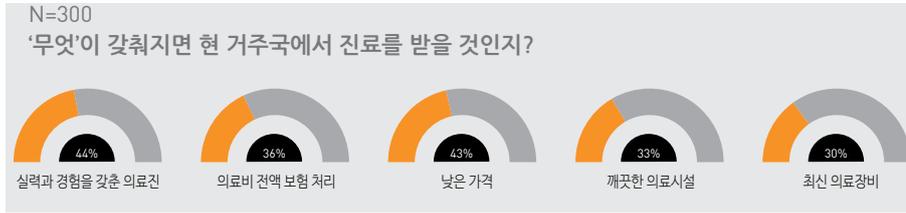
3-4. 거주국 의료환경 개선 우선순위 & 선호 홍보 채널(해외대신 자국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 및 선호하는 정보 채널은?)

- 거주국의 어떤 의료환경이 개선이 되면 해외의료관광 대신 거주국의 의료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질문에 4개국 공히 최우선 요소로 '실력과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중요하게 여기며, 추가적으로 가격요소가 우호적(의료비전액 보험 커버 및 낮은 가격)이면 의료관광 대신 거주국 의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중복선택)
- 의료관광 정보를 얻는 채널로 4개국 공통적으로 소셜 미디어(특히 페이스북)를 최고 선호하고 있어서 이를 통한 의료관광 홍보가 핵심적인 시사점으로 떠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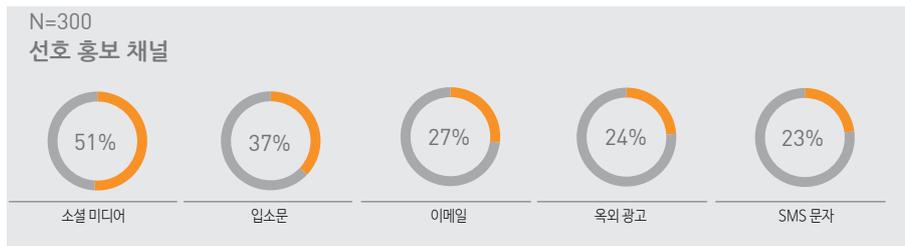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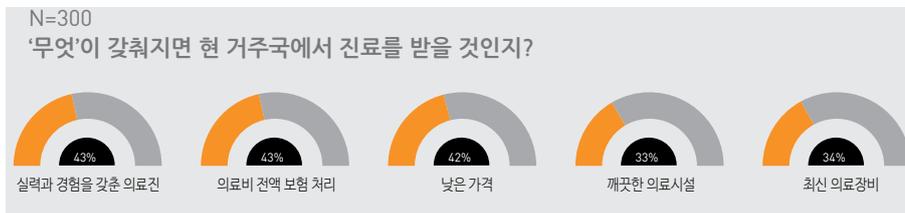
■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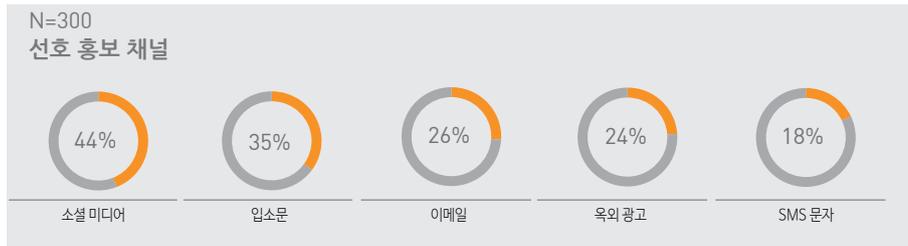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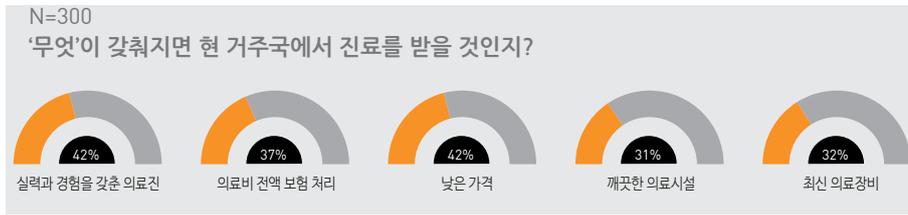
■ 카타르



■ 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III 요약 및 시사점

■ 중동주요국 의료관광 실태

중동 주요 4개국의 의료 수요자들은 실력과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찾아 자국보다 해외의료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관광의 목적지(국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높은 의료수준과 평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됨
중동 4개국 해외의료관광의 핵심 요소들

- 자국내 치료보다 해외의료 선호
- 목적지(국가)선택시에는 평판 및 높은 의료수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향후 목적지(국가)선택시 의료경험과 안전(낮은 범죄율)을 우선 고려
- 해외 의료관광의 주요 만족 이유는 좋은 의료서비스와 의사의 전문성
- 해외 의료관광을 알게되고 결심하는 경로는 주변사람과 의사의 추천
- 선호 홍보채널은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4개국 모두 의료관광 필요성 인식 및 경험에서 자국민의 비중이 외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개국 응답자의 평균 의료관광 횟수는 2회이며, 가장 많은 진료분야는 치과, 평균 방문기간은 18~19일임
- UAE 응답자가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인도임. 카타르와 쿠웨이트 응답자는 이집트를 가장 많이 방문했으며, 사우디 응답자는 터키를 가장 많이 방문함
- 의사 추천과 입소문은 의료관광 인식 경로일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특정 국가를 의료관광 목적지로 선택할 때 고려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3개국(카타르 제외)에서 ‘의료 경험’으로 나타남. 카타르의 경우 ‘안전과 낮은 범죄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중동권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시사점

중동 주요국에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의 정보채널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의사를 포함한 주변인의 ‘입소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한국의료의 전문성을 홍보할 수 있는 한국의료인의 현지 방문의사(Visiting Doctors) 프로그램 활용, 진료행사, 전문의학회를 통한 홍보 등이 유효할 것으로 보임

- 홍보 채널에서 확인된 입소문 증가를 위한 마케팅 노력 필요
 -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의료관광객이 가족 및 친구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및 인플루언서 활용 소셜미디어 통한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 인터넷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중동지역 한국의료 관심자를 위한 상시 상담센터 고도화(아랍어 통역 지원 등)
- 높은 의료수준과 좋은 평판이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의료전문가를 활용한 홍보가 유효함
 - 중동국가 주요 보건기관과 공동으로 의료심포지엄 및 보건의료협력 행사 등을 통해 정부 고위층에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 현지 수요가 높은 분야의 한국 전문의료진이 다양한 현지 프로그램, 행사 등에 참여 확대(현지 전문의학회 참여, 방문의사(visiting doctors) 프로그램 등)
 - 행사시 현지 주요 언론 노출을 통해 대중에게 한국 의료 홍보 및 인지도 향상

- 집필자: 황성은, 윤지영, 심정용(UAE지사) ○ 문의: khidiabudhabi@gmail.com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본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www.khiss.go.kr>)에 주간단위로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